

취업자 11년만에 첫 감소...비상용직 22만명 '증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수도 통계 사상 첫 감소

음식숙박·교육·예술스포츠 등 서비스 직격탄...신규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통계 사상 11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2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음식숙박·교육·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감소폭 상위 3개 업종 합계만 30만명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공공행정 등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또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강사와 연극·영화 종사자 등 특수 고용계층(특고)에서 타격이 심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1.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코

로나19 영향으로 2009년 6월 고용 부문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일용·기타 등 비상용직의 타격이 심각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000명(-0.1%),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7.0%), 기타종사자는 9만3000명(-7.9%) 감소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용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 비중이 커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근로자 감소도 통계 사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연기 영향으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5.3만명, -12.0%) △교육서비스업(-10.7만명, -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9만명, -11.9%) 순이었다.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음식점과 강사 등이 포함된 교육업, 공연업과 체육관이 들어가는 예술스포츠가 영업중단 여파를 면치 못한 것이다.

서비스 세부 업종을 들여다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13.7만명), 교육서비스업(-10.7만명), 소매업(-3.8만명)에서 가장 큰 감소가 기록됐다. 이는 주로 대면 서비스다.

이뿐만 아니라,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에서도 1.1만명 감소가 기록됐다.

제조업의 종사자 수 뒷걸음질도 심각한 사태로 풀이된다. 지난달 300여명이 감소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인 데다가, 최신 보정이 들어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역대 통계를 살펴보면 감소폭도 최고치다.

반대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4만명, 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1만명, 5.5%), 전



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만명, 3.4%)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급감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채용(88만8000명) 중 상용직은 44만명으로 1만3000명(-2.9%) 감소, 임시일용직은 44만9000명으로 13만6000명(-23.3%) 큰 폭 감소를 나타냈다.

지난달 임의직자도 코로나 고용 위기를 방증했다. 영세 사업장일 수록 이직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임직은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10.9%) 줄었으며, 이직은 121만1000명으로 2만9000명(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직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4000명(-9.3%) 줄었고, 이직자 수는 111만1000명으로 20만5000명(22.6%) 늘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임직자 수는 11만7000명(3.2만명, -21.8% 감소), 이직자 수는 10만명(0.5만명, 4.8% 증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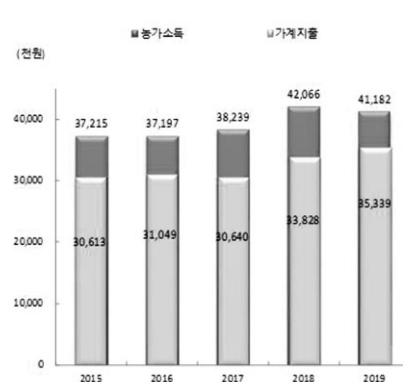
임시일용 임직은 13만4000명(-

22.8%) 급감, 상용 임직은 7000명(1.2%) 증가했다. 상용 이직은 17만5000명(31.9%), 임시일용 이직은 3만4000명(7.6%) 늘었다. 상용 이직 증가는 무급휴직 급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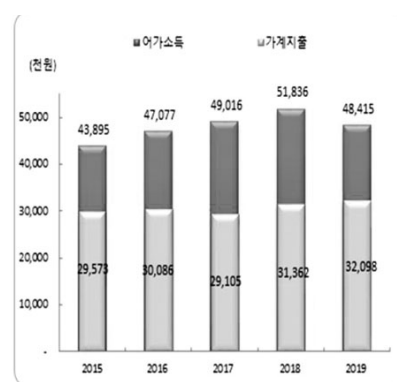
권기섭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2분기를 잘 버텨내고 하반기에 빠른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지난해 농·어촌 연간소득 동반감소...경영비·가계지출 부담 ↑



농가소득 지출 추이



어가소득 지출 추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촌과 어촌 가구의 평균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줄었지만 농·어업 관련 경영비와 가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통계청은 3000여개 농가와 1000여개 어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소득·수입·비용·농어업경영비 및 가계지출을 조사한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했으며 평균 가계지출은 3534만원으로 4.5% 증가했다.

평균소득 중 농업소득은 과수, 채소와 같은 농작물 수입이 줄었지만 한우육, 계란, 우유 등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대비 20.6% 감소한 1026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경상소득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36만원이다.

농업의소득(1733만원)은 겸업 및 급료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2% 늘었고 이전소득(1123만원)은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 확대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2946만원으로 전년대비 6.8% 늘었지만 평균부채도 3527만원으로 1년전보다 7.4% 증가했다. 자산별로는 금융자산 등의 유동자산에서 10.7%,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는 가계용, 겸업·기타 용에서 전년대비 7.4% 증가했으며 농업용 비중이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도 4842

만원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했다. 평균가계지출은 321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다.

평균소득 중 어업소득(2067만원)은 1년전보다 어업경영비가 3.5% 늘어난 반면, 어업총수입이 4.6% 줄면서 19.5% 감소했다. 어업의소득(1333만원)은 수산물가공업, 농업 등의 겸업소득이 줄면서 1.5%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어가의 평균자산은 4억5670만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평균보유부채는 6349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금융자산 등 유동자산이 줄었지만 토지, 건물(구축물) 등의 고정자산 상승 등이 자산 증가에 기여했다.

어가의 지난해 평균부채는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에서 모두 늘어 전년대비 4.1% 증가한 6349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에서 어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50% "1분기 수출액 ↓"

미·유럽 코로나 확산에 국내 기업 타격 본격화

수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24일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곳은 47.4%였는데, 지난 3월 조사 25.0%보다 22.4% 증가한 수치다. 30~50% 감소한 곳이 18.7%였으며, 50% 이상 감소한 곳은 28.7%에 달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현지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곳은 68.0%였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2.7%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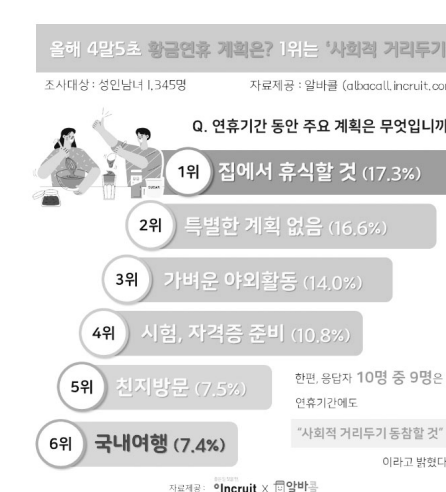
그러나 필요자금 대비 외부자금 확보 정도를 살펴보면 30% 이내가 44.1%, 30~50%가 33.8%로, 필요자금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77.9%에 달했다. 이외에 50~70%라는 응답이 11.8%, 70~90% 2.9%, 90% 이상이 7.4%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78.7%는 수출 악화를 전망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출국 수요 감소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기존 수출 물량 납품이 연기'를 꼽은 곳이 69.5%로 가장 많았다. '수출국 임박 금지로 해당 국가 내 영업활동이 제한' (50.0%), '해외 전 시회 취소로 수주 기회가 축소' (25.4%) 등이 뒤를 이었다.

신봉우 기자

3명 중 1명 "집에서 휴식"

'코로나로 하늘길 막힌 황금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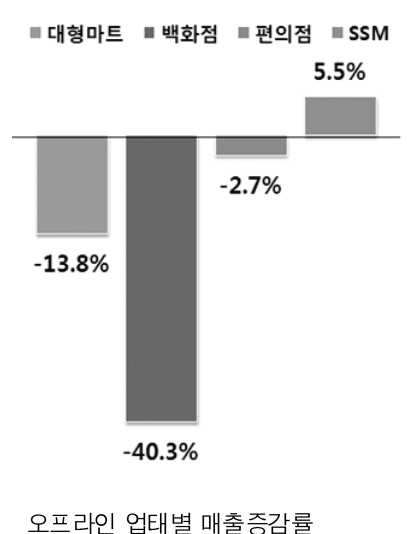
난 21~24일 성인남녀 1345명을 대상으로 '2020년 황금연휴 계획' (복수선택)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집에서 휴식한다는 응답이 17.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특별한 계획 없음(16.6%)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산책 등 가벼운 야외활동(14.0%) △시험, 자격증 준비(10.8%) △본가, 친지 방문(7.5%) △국내여행(7.4%) △원서접수,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활동(7.3%) △데이트(6.7%) △모임, 약속 참가(6.2%) △쇼핑(3.6%) 등의 계획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황금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급적 지키겠다(56.1%)와 매우 그렇다(39.1%)라는 답변을 얻었다. 무려 95.2%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여서 고무적이다.

유유나 기자

코로나19에 백화점 매출 40% 급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백화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명품' 소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무려 40.3%가 급락했다.

여성캐주얼(-58.7%), 남성리류(-51.3%)를 비롯한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 유

명 브랜드의 매출도 19.4%가 줄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의 통계가 개편된 이후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점포 방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13.8% 하락했다. 외출자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용품·스포츠·의류 등 외출 관련 용품 수요가 감소해 의류(-50.6%), 스포츠(-41.4%), 가정/생활(-20.0%) 등 전반적인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 역시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 등의 영향으로 과자와 음료 등 가공 식품(-3.1%), 도시락·샌드위치 등 즉석식품(-14.5%)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2.7% 감소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5.5%)을 제외한 나머지 오프라인 업체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오프라인 부분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17.6%나 감소했다.